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막

전 세계 청소년 스포츠 축제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강원 2024)가 성화 불꽃을 밝히고 차세대 스타들을 위한 꿈의 무대를 열었다. 6년 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문화자산을 내보이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2024'는 한국 시간으로 19일(금) 오후 8시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과 평창의 평창돔에서 동시에 개막 불꽃을 밝혔다. 세계 청소년들의 스포츠 축제인 이번 대회는 이날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14일간 강릉과 평창, 정선, 횡성 4개 시군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대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경기 시설을 활용해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올림픽이다. 역대 동계 청소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79개국에서 선수 1,803명이 참가했다.

강원 2024는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상위 입상자에게는 금·은·동메달을 수여하지만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



▲ 19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 건 선수의 국가가 연주되진 않는다. 그 대신 올림픽 찬가가 울려 퍼진다. 메달 집계를 통한 종합 순위도 매기지 않는다. 승패보다는 스포츠를 통해 전세계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우정을 나누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소년올림픽은 국가별 경쟁보다 청소년들의 참여, 문화와 함께하는 행사로 열리는 만큼 강원2024도 대회 기간 동안 개최지 4개 시군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어 대회를 찾은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K-컬처'의 저력과 함께 즐거움을 선사한다.

국립현대무용단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발레단, 강원도립무용단 등 국공립 예술단체가 문화예술공연을 펼치고, 개최지 4개 시군 내 5개 페스티벌 사이트에서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행사를 운영한다.

한편 이번 대회 전 경기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강원 2024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현재 입장권 예매가 35만 장을 넘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예고했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각국의 선수단과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경기 운영과 안내 체계, 수송, 관중 편의 상황 등 대회 전 부문을 꼼꼼히 살피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투백 MVP 노리는 엠비드 "남은 모든 경기에 출장하고 싶다"

엠비드의 목표는 남은 시즌을 모두 소화하는 것이다.

16일 '바스켓코리아'에 따르면 조엘 엠비드(211cm, C)는 지난 몇 년 간 괴물 같은 활약을 펼쳤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66경기 출전해 평균 33.1점 10.2리바운드 4.2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생애 처음으로 정규리그 MVP도 수상했다.

이번 시즌에도 이러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제임스 하든(196cm, F)의 공백에도 이날 현재 경기당 평균 34.9점 11.7리바운드 5.9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어 이번에도 강력한 정규리그 MVP로 거론되고 있다. 팀 성적 역시 25승 13패로 동부 3위에 있다.



▲ 조엘 엠비드, 사진=AP

엠비드의 활약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엠비드는 정규리그 MVP를 수상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바로 경기 수 때문이다.

NBA는 이번 비시즌 새로운 규정을 신설했다. 개인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규리그에서 65경기 이상 뛰어야 한다는 것. 엠비드는 시즌 초반 부상으로 10경기를 결장했다. 앞으로 남은 시즌에서 8경기 이상 결장하면 개인 수상 자격을 잃는다.

이에 엠비드는 '클러치 포인트'와 인터뷰를 통해 "나는 최대한 많은 경기를 뛰고 싶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 최근에도 무릎 부상으로 결장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매우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시즌 시작 전, 나는 내 목표가 82경기 출전이라고 했다. 그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이미 실패했다. 하지만 남은 모든 경기에 출전해 내 건강함을 증명하고 싶다. 건강하다면 나는 계속 경기에 나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엠비드는 2014~2015 NBA 신인 드래프트로 NBA에 입성했다. 그러나 첫 두 시즌은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2016~2017시즌에서야 데뷔전을 치렀다. 다만 데뷔 후 엠비드가 65경기 이상 뛰는 시즌은 2시즌뿐. 매 시즌 엠비드의 가장 큰 적은 부상이었다.

엠비드가 이번 시즌에는 건강함을 유지해 65경기 이상을 소화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조건만 충족된다면 엠비드는 강력한 MVP 후보임에 틀림없다.

베네딕트 파인 아트 Photography Gallery 포토그래피 갤러리

— 사진 클래스 회원 모집 중입니다. —



베네딕트 양 작가 | 미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전문으로 촬영해오고 있으며 약 4,000여점의 풍경 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예술대학(AIB)에서 순수 예술 사진을 전공했으며, 다수 사진공모전 입상과 사진 강사, 공모전 심사 위원 등 풍부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213.446.7476 | 3500 W. 6th St. #304, Los Angeles CA 90020